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를 잇는 오명관광여행사

오도창 영양군은 11일 오전 영양 전통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추석맞이 전통시장 정보기행'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은 11일 오후 청송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노인인권 및 노인대학 예방 교육'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준표, 이철우-의성군 싸잡아 '용단 폭격'

TK 신공항 공동합의문 민간공항 터미널 군위 항공물류·MRO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는데 경북도의 무관심 의성 복수터미널 위치 무리 요구로 국책사업 지연되고있다... '맹폭' 가해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이철우 지사와 의성군을 싸잡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홍 시장은 10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작심한 듯 발언 수위를 높였다. 회의에서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해 "TK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TK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군부대이전사업도 대구시가 주체가 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 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의료원을 행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이번 추석에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의료대란이다. 전국적인 의료대란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안정적인 의료대책을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관료적 사

고는 권위적이며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자 시각으로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라"고 강조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SK㈜C&C등과 함께 대구수성알파 시티에 SK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도 빼이는 충고를 했다. 대구시의 많은 축제들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그는 "새달 열리는 '판타지아페스타 가



추석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의회 사무처 직원 60여명과 함께 영주시 365시장을 방문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박성만 도의장과 임병하 도의원을 비롯한 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삼삼오오 나눠 제수용품과 과일, 추석 선물 등을 사들인 후 시장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가위의 정을 나눴다. 박성만 도의장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볼·먹·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에서 대안을 찾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현장 이곳은

김천시 용두사미 행정... 골재 채취현장 불법 천국

희림개발, 2만7500㎡채취 허가 목적자 50만㎡이상 불법 채취 지난해 5월말 허가 종료...배짱



사진은 불법 골재채취 현장 모습.

김천시의 뒷북 행정이 요란하다. 김천시의 골재채취 공장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회사는 김천시 용두리 일대 골재채취 기업인 희림개발이다. 이 회사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희림개발은 지난해 5월말로 허가 종료됐다. 1년 4개월동안 배짱 영업을 하고있는 셈이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취재에 비협조적이던 김천시도 바빠졌다. 지난달 26일 재차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 가동중지를 통보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대구·경북 레미콘 조합에는 불법 채취 골재 사용자 처벌 알리를 통보하고 협조공문도 보냈다. 그동안 김천시는 2021년 9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필두로 골재채취법 위반, 농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사반출계획위반, 사업장 가동중지 통보 등 수많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현재도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골재채취업을 하는 기업이 많지만 희림개발은 말이도 통안 통한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실제 이곳은 골재채취허가량 3만㎡보다 20여배 많은 골재를 채취한 또 다른 사업장에는 세류시설조차도 없었다. 제보자는 하루 25톤 120대 분량의 골재가 대구경북 어디론가 반출된다고 귀띔했다. 희림개발이 생산하는 골재의 성분 검사기간도 종료된 상태다. 검사를 득하지 않고 생산한 골재는 대구·경북의 레미콘회사에 납품돼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골재 생산에 비례해 폐기물인 골재 폐수처리오니(이하 오토)가 발생한다.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척을 하기위해 물이 필요하다. 제보자는 "물을 퍼 나르는 호스가 뒤편 저수지에서 골재공장으로 연결돼 있었고, 골재를 세척한 물은 하천으로 방류해 하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오토는 재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 서 다른 골재와 5:5 비율로 섞어 반출할 수 있다.

사진은 불법 골재채취 현장 모습. 희림개발 대표는 "5대5로 섞어 반출한다. 현장에 섞으려고 폐토를 갖다댔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도 혼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없었다. 오랫동안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1년 6개월에 걸쳐 슬러지모란 버렸다. 취재를 하고난 다음날 급하게 다른 골재를 들여와 중앙(사진)에 쌓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입회하에 굴착해 보면 진위는 드러나고 김천시의 현장확인도 사반출계획위반(산림청·지리정보부) 2만7500㎡채취를 허가받아 목적자는 50만㎡이상 불법으로 채취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수년동안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김천시는 지난 3월 19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사업장 가동중지 통보, 같은 달 26일에는 대구경북 레미콘 조합 등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음은 희림개발대표와 일문일답-행정의로부터 고발됐나 △그렇다. 허가기간이 끝나고 고발당했다. -허가기간이 언제 끝났나. △지난해 5월말 정도다. -계속 일을 해야되는 이유는 △슬러지도 허가를 받아 치우고 있었다. -김천에서 6개월전에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이 맞다. -그러데도 사업을 하나 △사업을 할 이유는 없다. -성분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8월7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겨 놓았다.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모른다. 그분이 돌리겠지 (공장을 팔았다. 기계만) 아직 슬러지 등 처리할 부분이 있어 완전히 매각된 상태는 아니다. 슬러지 처리방법은 5대5로 섞어 반출한다. 현장에 섞으려고 폐토를 갖다댔다. 조여은 기자

경북태권도협회, 훈련비 유용 의혹 파장...

협회, 선수들에게 하계훈련비 대회 '파견비' 위탁 의의 제기 하지않는다 내용 동의서 요구

이 사무실 출근 시 업무 일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가 내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 회장의 임기를 4~5개월 남겨두고 서둘러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려다 대한체육회의 제지를 받았다. 선거 중립 위반 행위로 간주돼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협회 한 지도자는 "이사회도 측근들로 채워놓고 현 회장의 독단적인 횡포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북협회 사무국은 선수들의 물품과 교통비 지급 등 훈련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평소 훈련과 5일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30일간 진행됐다"면서 "도복 등의 류비와 식대로 총 2700만원을 사용하고, 오히려 경기발전위원회가 500만원을 더

보태는 등 임원들을 위해 쓰인 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장에게 지급된 일비와 관련해서는 "도체육회 종목단체와 경북협회 규약에 '회장을 포함한 비상근 임원에게 업무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 "현재 다른 후보가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터라 12~1월 까지 장기간에 걸친 운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협회가 추진 중인 내년 사업들도 당선될 선임 회장이 조기에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둘렀던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조치를 수긍하고 선관위 해산 등 선거를 중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경북체육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뒤 경북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41층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서 火 났다

생활·문화·의료·행정 등 인프라 밀집 대구중심 공급되는 주거시설... 현대건설이 거창하게 내놓은 대구 중구 태평로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에서 불이났다. 41층짜리 대구역 아파트다. 불은 10일 오전 10시 46분께 41층짜리 아파트 공사장 옥상에서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공사 중인 아파트 쪽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관 102명과 소방차 등 장비 39대를 투입, 오전 11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11시 21분께 불을 꺼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연기를 마서 구조한 공사 관계자나 대피한 인원은 없으나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고 다수의 동일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생활·문화·의료·행정 등 인프라가 밀집된 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주거시설이다. 태평로 3가 221의 5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2개 블록, 390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41층, 아파트 216가구(전용면적 84㎡)를 먼저 공급한다. 단지 지상 1~3층에는 상업시설인 '힐스테이트 비뉴대구역퍼스트'가 조성된다. 송영주 기자

로 확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연기를 마서 구조한 공사 관계자나 대피한 인원은 없으나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고 다수의 동일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생활·문화·의료·행정 등 인프라가 밀집된 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주거시설이다. 태평로 3가 221의 5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2개 블록, 390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41층, 아파트 216가구(전용면적 84㎡)를 먼저 공급한다. 단지 지상 1~3층에는 상업시설인 '힐스테이트 비뉴대구역퍼스트'가 조성된다. 송영주 기자

사회적 고립·만성질환 결합 우울증 위험 2배 높아

사회적 고립과 만성 질환이 결합하면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계명대에 따르면 손낙훈 통계학과 교수 등 3명의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

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에 발표했다.

국내 중·장년 5000여명을 상대로 진행된 연구 결과 사회적 참여가 주 1회 미만인 남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2.88배, 여성은 2.58배 증가했다. 주 1회 미만 신체 운동을 한 남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2.61배, 여성은 1.51배나 높았다.



국내 첫 경북 선도 '해양 콘텐츠산업 육성 포럼' 출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내일 포항포은중앙도서관서 해양콘텐츠 전문가 85명위촉

해양 콘텐츠산업 육성 포럼(이하 포럼)이 오는 12일 출범한다.

이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포항 포은중앙도서관 1층 어울마루에서 뜻을 올린다.

국내 최초 해양 콘텐츠 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해양 콘텐츠산업 육성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경북도 환동해 콘텐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해양 콘텐츠 산업 분야 정책발굴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콘텐츠산업 분야에 맞춘 해양 스토리, 해양 관광·레저, 해양 기술 콘텐츠, 해양 유통 콘텐츠의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산·학·관·연 전문가 총 85명(위원장 1명, 분과위원장 4명, 위원 80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출범식은 1부 포럼위원 위촉식, 2부 착수포럼으로 진행된다.

위촉식은 최영호 포럼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의 인사말과 포럼위원 위촉장 수여식으로 열린다.

2부는 이종수 콘텐츠진흥원장의 해양콘텐츠 산업 육성 포럼 소개를 시작으로 4개 분과위원장 기조강연 중심의 착수포럼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생명의 바다에서 바다 그 자체까지의 주제로 해양스토리 분과위원장(이상모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이 한다.

강연은 해양 관광 및 레저 분과위원장(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의 △포항의 헤리티지인 통양포의 역사와 미래, 해양 기술 콘텐츠 분과위원장(박주호 포항공대 교수)의 △Distinctive, Unique and Different Contents for Survival, 해양 유통 콘텐츠 분과위원장(고문현 숭실대 교수)의 △ESG 관점에서 본 해양의 가치의 비중있는 주제를 다룬다.

김재수 대표이사는 "콘텐츠는 IP를 통해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것으로, 해양 콘

텐츠 또한 지역에서 중요한 콘텐츠 화두로 다양한 과급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수성과 차별성을 담아내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북도의 특색있는 문화가치에 자긍심을 갖게 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는데 몰입양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해양 콘텐츠 산업 미래 전망 및 이슈, 지역 핵심 현안 중심의 정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향후 분과별 포럼 및 간담회를 열고 착수들을 모아 올 연말 지역별 공약에 맞춘 해양 콘텐츠 산업 육성 국회 연수회를 연다.

관계 부처 신규사업 제안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양 콘텐츠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싱크탱크(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모아서 연구 개발 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조직)로 자리매김한다.

행사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포항시가 후원한다.

괴물이 된 유치원 교사 아이 폭행 만행...

6살 목 조른 유치원 男교사 CCTV에 적나라하게 담겼다

"6살 목조르고 패대기" 유치원 男교사, 다른 교사앞에서 때렸다

대구에 있는 한 유치원 남교사가 6살 아이들을 장기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원생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에 따르면, 대구 소재 유치원 남교사 A씨가 지난 3월 개학한 뒤 두 달 이상 6세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의 원생 폭행은 피해 아이들이 A씨와 닮은 성인 남성을 보면 눈이 커지고 몸을 떠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A씨가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상일였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CCTV를 보면 A씨는 앉아있던 아이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킨 뒤 때렸다.

이어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 넣더니 바닥에 패대기쳤다. 선반에 아이 머리가 부딪칠 뻔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아이의 명치도 때렸다.

A씨는 바닥에 집어 던진 책으로 다른 아이의 배를 찔렀고, 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또다른 아이는 목을 졸리기도 했다.

A씨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난 아이는 목을 잡고 한참을 고통스러워했다. 갑자기 불러 나온 한 아이는 명치를 맞고 쓰러졌고, 아이가 일어나자 A씨는 계속 때렸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찢려 버릴 것 같았다"며 "주먹으로 계속 찍어대서, 진

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추가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다른 보조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장면이 담겼다.

해당 유치원 측은 학대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학대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보고도 묵인한 건 학대를 사실상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무자격 원장에 의해 운영됐으며 교육청엔 자격이 있는 B씨 명의를 빌려 원장으로 등록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함께하는 즐거움, 새로운 도전 희망 향해"

2회 경북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제2회 경북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가 10일 막을났다.

대회는 문경시 일대에서 도내 초·중·고·특수 학교(급) 학생과 지도교사, 체육지도자 등 총

800여명이 참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특수교육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회는 내년에 치러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북 대표 선수 선발과 신인 선수 발굴, 장애 학생의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 학생 체육 영역에서 기량을 발휘할 기회가 적었던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 우수 체육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회 종목은 육상과 디스크골프, 배드민턴, 볼링, 슐런, 역도, 실내 조정 등 7개 종목이다.

310여 명의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회는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장에 구급차와 의료진을 배치, 교육지원청별로 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철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1회 대회에서 발굴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출전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 선수단은 금 31개와 은 22개, 동 12개 등 총 6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역대 최고 성적인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대회 육상 종목에 참가한 한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명주 기자

경북교육감배 초·중 구간 마라톤대회 성공

미래 육상 중·장거리 선수 조기 발굴 육성

'2024 교육감배 사·군 대항 초·중 구간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회는 육상의 중심도시 예천군에서 열렸다. 육상경기 인구 저변 확대와 중·장거리 선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열렸다.

도내 사·군을 대표하는 초·중학생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초등부 13.2km, 중학부 15.3km 코스를 각각 7구간과 6구간으로 나눠 예선스타디움 결승점을 출발, 예천군 일대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 안동교육지원청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이 2위, 경주교육지원청이 3위를 기록했다.

군부에서는 철곡교육지원청이 종합 1위를, 예천교육지원청은 종합 2위, 고령교육지원청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가 2025년에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경쟁을 넘어 함께 달리며 협력하는 스포츠 교육의 장이 되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전국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제104회 전국체전까지 2년 연속 종합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제105회 전국체전(김해)에도 종합 1위를 목표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인구감소 대책은 지방의 힘으로!!

이철우, 정책컨퍼런스서 'K-농업 대전환' 발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컨퍼런스에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 자리에서 경북도의 성공 사례인 'K-농업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는다"는 구호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12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각 시도지사가 지역에서 추진한 대표 사례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는 미국 전미주지사협의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시도지사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 아젠다를 실현할 비전을 제시, 대국민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 기조 세션

과 인구감소 대응 세션,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 제도개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발표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북도가 농업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공시킨 농업대전환"을 소개했다.

이지사는 "K-농업 대전환은 농민은 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 근로자보다 못 사는 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농업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 사례로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농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대표적 사례인 문경영순지구를 소개했다.

한국의 국가유산 대표 도시는 '용도' 경북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국내유일 국가유산 박람회 경주HICO서 모레까지 열려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이 10~12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로 제8회를 맞는다.

행사는 국가유산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 국내외의 우수한 국가유산 산업기술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문전시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6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인 경북에서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경북이 한국의 국가유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유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 주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이다. 행사는 5개 분야에서 112개의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업체가 참여, 308개 전시 공간(부스)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국가유산 관련 각종 신기술제안과 구매 상담, 판로 개척 등을 진행, 국가유산 잠재력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대구 지저동 민간사회안전망희, 성금 기탁

대구 지저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금 25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

몸어르신 등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성대 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지저동장은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민간사회안전망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 애은정을 담아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어슬렁길 골목축제’ 즐기러 군위로 오세요”

흥미로운 골목이야기 개최 전통 놀이·어린이 과거시험 체험 스탬프 골목투어·지역민 플라마켓

역사와 자연, 향토적 정취와 지역의 특별한 먹거리와 함께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에서 펼쳐진다.

20~22일까지 3일간 의흥면 읍내길 일원(의흥향교-의흥전통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년 의흥 어슬렁길 골목축제'는 의흥(義興)만의 흥(興)겨움과 매력적인 맛(味)이 어우러진 축제(興)미(味)로운 골목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는 대구광역시 '2024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어슬렁길 골목상권 상인회가 개최한다.

어슬렁길 골목상권 상인회는 지난 5월 역사적·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유적의 의흥향교에서 읍내길까지 옛 선비들이 거닐던 발자취를 따라 향토적 정취를 만끽하고, 번성했던 의흥의 옛 명성과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읍내리 주민들의 열정이 모여 결성됐다.

'어슬렁길 골목축제'에서는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의흥향교에서는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 공간 마련과 함께 21일, 22일 양일간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비문화체험과 어린이 과거시험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과거시험 참가자 전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간식 꾸러미가 제공된다.

의흥 향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린이들에게 조금은 낯선 역사유적과 전통문화에

도 한 발짝 친숙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 SNS,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053-943-6667)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흥 전통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볼거리로는 20일 금요일 저녁 시원한 가을밤의 정취와 함께 즐기기 좋은 퓨전 국악그룹 '이어람'의 공연을 시작으로, 21일 토요일에는 인기 캐리커처 작가 산티의 '우리가족 캐리커처 체험'과 지역 가수 버스킹 공연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의흥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색소폰 및 장구 공연 등 온가족이 함께 힐링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먹거리로는 오래전부터 명맥을 이어온 의흥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인 닭포살고기를 숯불 향 가득한 레트로 분위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푸드코트를 조성하고, 어슬렁길 내 일부 식당은 축제기간 동안 1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기로 자진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그 밖에도 옛날 놀이 체험, 골목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스탬프 골목투어, 지역주민 플라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축제 당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 대상으로 특별한 경품 행사까지 진행하여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재미있는 문화체험, 정겨운 볼거리와 특색있는 먹거리 등 어슬렁길 골목상권 공동체와 의흥 주민들의 열정으로 풍성하고 흥미로운 축제를 마련했으니 가족들과 함께



군위군을 방문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매력을 지닌 의흥면이 군위지역 동부권을 대표하는 곳으로 거듭나 지역에 더 큰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북구청,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계몽 운동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점검

북구청은 9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계몽 운동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다.

대구 북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계몽 운동을 실시하고 함께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구에서 관여하는 공

공요금을 대상으로 향후 요금 조정 시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며, 물가안정 거리 계몽 운동,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등을 운영해 지역물가안정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올해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높은 외식 물가 및 기상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추석 성수품의 가격상승으로 주민들의 물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시로 가격동향을 살피고, 중앙정부 물가정책에 맞춰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가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웅 기자

대구 북구청, 엠지(MZ)세대 직원 대상 혁신 강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초청 올바른 사회생활 등 조언

북구청은 지난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엠지(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북구의 미래를 이끄는 20~30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공직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엠지(MZ)세대를 위한 직원 혁신 강연을 개최했다.

"엠지(MZ)세대 공무원의 행복론 및 올바른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전한길 강사는 현재 메가스터디 메가공무원 한국사 대표 일타강사로,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내 인생 우습지 않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한길 강사는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율이 급등하고 있는 엠

지(MZ)세대 공무원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론과 올바른 사회생활에 대한 유의한 조언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직원의 공직사회 적응 지원은 물론 다양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강연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그 결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최

국제 바칼로레아 관련 자유 발언 등

대구시 군위군의의회가 9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위군의의회는 9월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

영장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의 회 운영 관련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도 다룬다.

안전 상정에 앞서 박윤표 의원은 '군위군 18(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도입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서대식 의원은 '수서리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공간 개발과 주민 건강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촉구', 박수현 의원은 '군위군 군부대 유치와 관련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준비 당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규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수성미래교육재단, 대입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의대 다중미니면접 준비 관련 효성여고 진로부장 질의응답



수성미래교육재단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025년 대입수시모집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면접 유형에 맞춰 제시문기반면접, 서류기반면접, 의대 다중미니면접(MMD)을 준비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결과와 수험생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에서 대비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시문기반면접의 경우 특강과 실전면접을 병행한다. 제시문기반면접 특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입진학지원단 제시문면접 지원팀 최형두 효성여고 진로부장이 '제시문기반면접의 특성 및 대학별 출제경향'을 주제로 강연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제시문기반면접 실전면접은 다음 달 5일 수학 물리, 수화화학, 인문계열 3개 반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기출예상문항분석 개인별 풀이 I - 전체 강의 - 기출예상문항분석 개인별 풀이 II - 11 모의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기반면접은 대학입시 전문 컨설턴트를 면접관으로 초빙해 실제와 같은 상황을 설정해 진행하며 다음 달 5일과 12일 두 차례 열린다. 조미경 기자

중구,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더샵 리비테르 2차 아파트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대봉로

43길 22)'를 중구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등의 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더샵 리비테르 2차'는 613세대 중 366세대(59.7%)가 동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는 2025년 2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0일부터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조미경 기자

경주시, 추석 연휴 대비 비상급수 대책 마련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추석 기간(오는 14-18일)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오는 13일까지 주요 상수도 시설과 굴착공사장,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보수 조치를 취한다. 수도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 수도관 사용량 증가로 인한 누수, 출수 불량 등의 사고를 사전에 막는다.



인문도시 지원사업 국비 4억 2000만원 확보

공감문화 상생플랫폼도시 구축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 전력질주

경주시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인문 강좌와 인문 체험, 인문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민들의 인문 생활화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한 경주시는 2027년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주, 공감문화상생플랫폼

도시'라는 주제로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최부자택의 공감정신 △동학삼경사상의 공감정신 △디지털배지와 공감시민상 등이 담겼다.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인문 강좌와 인문 체험 △찾아가는 인문강좌 △명사초청강연 △전시회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의 인문 축제도 추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주의 공감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경주, 공감문화 상생플랫폼도시 구축을 통한 지역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9일 예술의전당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분야별 시민실천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주시, '현곡 도담도담마을돌봄터' 오픈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경주시는 10일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인 '현곡도담도담마을돌봄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은 주낙영 경주시장과 시·도의원, 지역 초등학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민선 8기 주낙영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만 6세~12세)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다. 긴급은 물론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습 지도와 함께 미술, 체육, 요리, 댄스, 코

딩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개소한 '현곡도담도담마을돌봄터'는 현곡초등학교와 현곡푸르지오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용 정원은 20명이다.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사회체험 동조합 '도담도담 덕숭'이 위탁 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개소식에서 "현곡도담도담마을돌봄터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경주시는 '함께하는 돌봄, 맘(MOM) 편한 경주'라는 비전 아래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까지 총 8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충한다.

APEC 정상회의 개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APEC 시민 실천 방안 논의 분야별 실천 방안 도출 반영

경주시가 지난 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분야별 시민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시민원탁회의를 가졌다. 시민원탁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운수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준순 APEC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의 발제로 시작해, 원탁별 소그룹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식품접객·숙박·운수·문화관광·홍보미디어업, 도시미관분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각 분야별로 실천 방안을 논의,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했다. 먼저 대학생 그룹은 홍보단 결성,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슷폼 제작, 문화관광·홍보미디어 그룹에서는 다양한 경주 APEC 관련 챌린지 시행 등의 착상을 제시했다. 식품접객·운수업 그룹은 스마일경주 조성, 외국어 스티커 제작, APEC 관련 합동 교육 분기별

실시, APEC 홍보 명함 승객 배부, 도시미관 그룹에서는 집압청소 인증샷 SNS 공유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일반시민 그룹은 찾아가는 시민홍보단 구성 운영, 직종별 친절 메뉴얼 제작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시는 이날 도출된 원탁회의 의견과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토된 의견을 향후 담당 부서와 공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국제회의도시로 자리매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 개최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주향교 추계 석전대제 봉행...

유림 인사 등 100여명 참석 경주향교서 유교정신 기려...

경주향교 추계 석전대제가 10일 오전 향교 내 대성전에서 경주시 유림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석전대제는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 유교 의식으로 매년 봄(음력 2월 초정일), 가을(음력 8월 초정일) 두 번에 걸쳐 봉행하고 있다. 초헌관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아헌관에는 이용우 경주향교장, 종헌관에는 김성오 전 서면유도회장이 맡아 각각 헌작했다. 경주향교는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세워진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향학으로, 조선시대에는 향

교로서 지방교육기관의 중심 역할을 이어왔다. 나주향교와 함께 향교 건물 배치의 표본이 된다. 건물은 전형적인 전묘후학의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대성전, 명륜당, 동무·서무와 신삼문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주낙영 시장은 "향교 석전대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유교적 가치와 전통을 되새기고 보존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서 성스럽고 의미 있게 봉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교의 석전대제를 통해 옛 성현들의 뜻을 새겨 각박한 세상에서 예를 중시하고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제의 큰 의미를 기렸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함 설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페플라스틱 재활용 나서

경주시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솔찬누리화랑 봉사단'이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병뚜껑을 수거한다. '솔찬누리화랑 봉사단'은 경주시 청소년수련

관 1층 로비에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함을 10일 설치, 새달 20일까지 운영한다. 플라스틱 음료병은 PET(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병과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구성, 재질이 달라 재활용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솔찬누리화랑 봉사단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집중 수거해 자원 순환을 돕기로 나섰다.

수거된 병뚜껑은 재활용업체 '업사이클링 클럽'을 거쳐 경주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그립톡이나 치약짜개 등 재탄생한다. 완성된 제품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솔찬누리화랑 봉사단 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54-760-2232, 7776)로 문의하면 된다. 배경해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이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운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영천시의회,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영천시의회는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활동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나자렛 집, 마야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휴지, 라면,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서로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김선대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위문 활동이 관내 주민들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웰니스의 모든 것...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개최

총 105개 부스 항시 체험 행사
인도·일본·독일 등 국가 전시
3~6일까지 고래볼 국민야영장

영덕군은 세계 3대 자연 의학이 융합한 웰니스를 체험하고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하는 라이프 박람회인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를 내달 3~6일까지 고래볼 국민야영장에서 개최한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

재단이 주관하는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엔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약진흥원, 인도 아유르베다의사협회와 델리대학교,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국내·외 유명 기업이 함께하는 국제 행사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개막행사, 웰니스 체험,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로 구성돼 있으며, 개막 행사엔 관객과 함께하는 인도 전통춤 공연, 자연을 소재로 한 약기의 합동 연주, 웰니스 토크 콘서트, 고래볼 해변 걷기 등이 이뤄진다. 축제 기간 총 105개의 부스에서 항시 진행되

는 웰니스 체험 행사는 한의학, 인도 아유르베다, 독일 크나이프 등 각국의 전통 의학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 의료 체험, 웰니스 푸드·뷰티·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푸드마켓, 한국·인도 합동 공연과 인도 민화 초대전을 감상할 수 있는 웰니스 문화행사 등을 다채롭게 담고 있다.

이밖에 웰니스 자연치유 행사로 숲속 낚잡 자기, 이완 명상, 요가, 비치 맨발 걷기, 명태리기, 캠핑 등이 이뤄지는 휴게존을 별도로 조성해 상시 운영한다.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 역시 축제 기간 항시 운영되며, 인도·일본·독일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한눈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웰니스 분야 주제 발표 및 토론, 한의학·아유르베다 융복합 시연 등을 통해 웰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영덕군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영덕군은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웰니스 산업 발전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24개의 국내·외 기관과 홍보, 인재 양성, 교육 발전,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wi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페스타 행사는 문화유산 여행, 목은 문화제 행사와 맞물려 많은 사람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여긴다"며, "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영덕 고래볼 국민야영장에서 바쁜 일상에 지친 모든 분이 영덕만의 특색있는 웰니스를 누리고 즐기면서 더 높이 도약하는 힘을 충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미래 열어갈 정책 발굴 활발

아이디어 상자 2기 보고회
총 10개 팀 40명 직원 구성

울릉군은 지난 6일 울릉 U-BOX(아이디어 상자) 2기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울릉군의 미래를 열어갈 정책을 발굴·심사했다.

이번 U-BOX 2기는 총 10개 팀, 4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제는 분야별로 △관광분야(별선과학관, 스마트 관광 플랫폼 등) △환경분야(다회용기 확산) △교통분야(친환경 모빌리티) △디자인분야(공공디자인) △경제분야(공공오피스)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울릉군수를 비롯한 울릉군 의회 의원, 주재 기자, 관내 기관 단체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질의응답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제시된

정책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울릉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 U-BOX를 통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정책 기획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가 깊다"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제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울릉군의 주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릉 U-BOX(아이디어 상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토론·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1기에서 제안된 국가정원 조성, 도심형 케이블카 설치, 공공택지 개발 등의 아이디어는 향후 울릉도 등 먼섬지역 특별법의 종합발전 계획과 제5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환 기자



김천시는 지난 6~8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진 '2024 김천포도축제'에 예년보다 방문객이 늘어 축제 기간 5만여 명이 현장을 다녀갔다.

청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체계 가동중

기피제·소독제 배부 진행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청도군은 9일 드론을 활용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피해예방 및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가동중이다.

야생멧돼지를 질병매개체로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올해 경북 22개 시군 중 4개 지자체(영덕, 영천, 안동, 예천)에서 발생했고,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도군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양돈농가 8대 방역 시설 현장 지도점검 △양돈농가 방역사항 수시 홍보 및 시설·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성공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영천·안동·예천 ASF 발생 시, 군은 양돈

농가 및 축협, 읍·면에 발생농장 정보, 미흡사항, 추정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공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의 이동제한 명령 시행과 임상검사 등이 관련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내 양돈농가(24호)에 대해 고형 및 분무형 멧돼지 기피제 96포(7,200천 원)를 지원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기피제 240포(6,500천 원), 소독약 1,062리터(13,960천 원)와 생석회 336포(1,700천 원)를 배부했다.

드론을 이용한 분무형 기피제 살포는 경산시 경계 3농가, 경남 밀양시 경계 2농가 등 5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지원본부(경북도본부)의 인력지원을 받아 실시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드론 활용 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준 가축위생방역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람·차량의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 전·후 축산농가 집중소독과 귀성객 대상 방역수칙 집중 홍보를 통해 차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김천포도축제' 보는 축제서 참여·맞춤형으로

축제 기간 5만여명 현장 찾아
많은 도시민들 축제 유입 분석

김천시는 지난 6~8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진 '2024 김천포도축제'에 예년보다 방문객이 늘어 축제 기간 5만여 명이 현장을 다녀갔다.

올해 사인홀릭 김천힐링 슬로건 아래 김천포도축제는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일원으로 장소를 옮겨 자연 친화적이고 캠퍼스 같은 축제장 분위기 조성으로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축제는 포도왕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역대 수

상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수상자 포도 및 신상품 포도, 김천포도사신대회 수상작 전시로 김천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불어 포도의 달인, 포도당도맞추기, 포도선별로포, 119 안전체험, 물풍선 드랍챌린지, 과학키즈존, 우드플레이파크, 블레이스 등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도 놀이터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인형극을 진행하여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마련했고, 각 기관 홍보 부스에서 무료 체험을 진행하여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올해는 김천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고품질의 포도를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사인머스켓

2kg 14,000원, 4kg 27,000원으로 판매결정하여 3일 내내 하루 판매 준비량이 오전에 완판되어 오후에는 판매할 포도를 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고품질의 포도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매년 포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보는 축제에서 참여형 축제로, 포도 구매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김천을 찾았다. 축제에 방문해주시는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올해를 계기로 매년 더 발전시켜 전국 최대 포도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제4기 독도박물관 대학 운영

6회 인문학 강의·2회 현지답사
인문학 강의로 문화 향유 증진

독도박물관은 12~17일까지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기 독도박물관 대학을 운영한다.

독도박물관은 2023년부터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4번째 박물관 대학을 개강하게 되었다.

박물관 대학의 주제는 "울릉도 문화의 같음과 다름"으로 울릉도 도서 문화와 내륙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는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독도박물관 대학은 8회차 강의로 구성돼 6회의 인문학 강의와 2회의 현지답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인문학 강의의 경우 '영동, 바람이야기', '울릉도의 음식문화사', '울릉도 고분군의 특징

과 의미', '아기의 외갓집 첫날들이', '울릉도 축제의 의미와 한계', '울릉도 출토 유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하여 문화적 동질성과 차별성을 살펴봄으로써 울릉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2회의 현지답사도 진행된다.

1차 답사는 울릉도 남서리 고분군 답사로 15기의 고분군이 어떠한 형태로 축조됐고 해당 고분군이 가지는 문화적 중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2차 답사는 여수 및 거문도 등 남해안 일대의 울릉도 교류와 연관된 지역을 방문하여 타자의 시각에 비친 울릉도 및 독도의 인식을 고찰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박물관 대학을 통하여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인문학 강의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윤환 기자

제16회 청송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청송군은 청송관광의 매력을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제16회 청송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 사진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청송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청송문화원이 주최하며, 청송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 유·무형 문화유산, 청정 자연환경, 사과축제 및 백자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 등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1인당 출품수에 제한은 없다. 사진의 출품규격은 11x14인치 또는 10x15인치(컬러 또는 흑백)이며, 출품료는 5점까지 2만원, 초과 2점당 1만원이다. 또한 시상내역은 대상 등 총 62점을 시상하며 대상(1명)에게는 500만원이 주어진다.

출품된 작품은 사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예정으로 당선작 발표는 10월 14일 청송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청송사과축제장에서 열리며 당선작들은 제18회 청송사과축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윤병문 기자

제1회 영양 별천지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남시니어 9팀·여 클럽3부 18팀 등
여자 클럽3부 우승 구미스카이 배구



영양군은 지난 7.8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제1회 영양 별천지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배구대회로서 남자 시니어부 9팀, 클럽3부 24팀, 여자 클럽3부 18팀 미시부 9팀이 참가하여 경기 결과 남자 시니어부 우승은 한강, 클럽3부 대구교대OB, 여자 클럽3부 우승은 구미스카이 배구클럽, 미시부 부산악바리팀이 차지했다.

영양군에서는 사전에 군민회관 바닥 샌딩 작업을 마쳐 대회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년 대비 더욱 발전된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회 참가 선수단 및 가족들의 영양군 방문으로 관내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영양을 찾아주시는 동호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가 모두가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의성, 고향사랑기부제 사례 대회 장려상

의성군은 지난 6일 경주화백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받았다.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2회

고향 사랑의 날' 행사 기간중에 열린 부대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1차 사전 심사를 거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및 홍보방법, 담례품

개발 등 우수운영사례에 대하여 본선대회에서 발표하여 전문가심사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군은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5개 운영사례를 발표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재성 기자



“명절은 볼거리·체험거리 많은 선비세상에서”

안민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 운영 온라인 네이버 폼 사전 신청 가능 영주, 11월 초까지 각종 체험 진행

영주시는 11월 초까지 매주 주말과 추석 연휴에 '안민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 하반기 프로그램을 선비촌 일대에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시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안민낙도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안민낙도 새로보기'(전통문화 체험)와 '안민낙도 음미하기'(로컬푸드 체험)로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추석 연휴에 운영되는 '안민낙도 새로보기'의 주요 프로그램은 △선비놀이 한마당(투호, 윷놀이, 버나돌리기, 제기차기) △선비, 공감 오늘(전통 한지체험, 천연염색 체험, 목공예) △선비촌 오픈 스튜디오(전통 의상 대여 및 전문 사진작가의 촬영 포토부스) △선비촌 일상재현(전통 마당극, 판소리 공연 등)으로 다양한 체험이 준비된다.

'안민낙도 음미하기'의 주요 프로그램은 △

안민낙도 선비상회(전통 플라마켓) △선비촌 근사한 한 끼(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가 있다. 요리 체험 프로그램은 영주시 홈페이지(공지사항 란)에서 온라인 네이버 폼 사전 신청이나 현장 신청으로 참여 가능하다.

안민낙도 선비상회는 영주시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 및 특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린 공예품·체험·먹거리를 제공하는 전통 플라마켓으로 지난해 18회, 올해 상반기 15회 걸쳐 진행돼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선비상회 및 체험금액 합계에 따른 다양한 선물지원 등의 이벤트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일상재현 프로그램은 관객과 호흡을 맞추는 마당극 등 전통공연이 진행되며 선비촌 곳곳에 있는 일상재현 배우들을 만나 게임에 참여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아울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10월에는 한국음악의 맛과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국악 버스킹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주관, 선비촌 체험 콘텐츠 '선비의 하루'를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비의 하루'는 안민낙도를 주제로 영주 특



영주시는 11월 초까지 매주 주말과 추석 연휴에 '안민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 하반기 프로그램을 선비촌 일대에서 운영한다.

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주조체험 '갯생음미 선비촌 명가명주', 고즈넉한 저택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 프로그램 '갯생힐링 마음

그리는 시간', 고택에서 즐기는 야간 캠핑 체험 프로그램 '갯생풍류 선비촌, 느슨한 저녁'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4영주시 계획공모형 개발사업 누리집(http://yjgoodday.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상기 기자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신축 지원 보상 착수

감정 평가 거쳐 안내문 발송 10월 11일까지 상시협의 가능

상주시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2019년도 공공병원 신축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2021년도에 상주권(상주, 문경)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주시는 대한적십자사와 2022년 7월에 사업대상지 확정, 2024년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상 협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2월부터 토지·물건 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보상 협의 안내문을 개별우편으로 발송했다.

보상 협의 안내문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올해 7월에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 세무사, 회계사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이사에 필요한 매물 소개와 각종 법무·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을 알리는 안내를 동봉했다.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시협의(우편, 전화 등)가 가능하며, 남원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협의 서류발급의 편의성과 거주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원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장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개 시군, 군부대 통합이전 건의서 전달

의성군 포함 4곳 공정 추진 공감 군, 이달 복수 예비후보지 결정

의성군은 경북의 4개 시군(영천, 상주, 의성, 칠곡)이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방부,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유치신청 초기에는 없었던 국방부의 훈련장 후보지 요구와 군부대 이전 절차 비공개로 대구시,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유치신청 지자체와 갈등이 발

생했다. 지난 8월 영천, 상주, 의성, 칠곡, 군위 5개 지자체장들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의 시작에 앞서 군부대 이전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한 군부대 이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뜻을 같이하기로 하여 공동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선정은 국방부가 결정할 것 △국방부는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여 갈등 없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의 내용이 담겼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모든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주민 수용성, 군 임무 수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장 후보지를 전면 군유지로 제출했고, 지난 4일 국방부의 훈련장 후보지 현장 평가를 받았다. 9월 중 5개 지자체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군 임무 수행가능성, 정주환경 평가 후 복수 예비후보지가 결정되고, 이후 연내 대구시가 수용성, 사업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예천군 '맥주페스티벌' 원도심 상권에 '훈풍'

상설시장 3000여명 방문 원도심 상권 이동 효과

예천군은 지난 6일 예천읍 원도심에 위치한 상설시장에서 추석맞이 소비촉진행사인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14개 점포와 플라마켓이 참여해 시원한 생맥주와 간편 안주, 먹거리가 마련됐고 시장 내 축제 분위기로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지난달 26일부터 각 점포에서 2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배부된 경품추첨권 1500장이 모두 소진되며 상설시장의 매출 상승을 이끌

었다. 생맥주 부스에서는 본행사가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무료나눔 이벤트가 열리고 480ml 한잔을 전 원에 판매하는 행사도 이어져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함께 20L 30통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외에도 초대가수들의 축하공연은 물론 맥주 빨리마시기, 북북북 맥주병 큰소리로 따기, 맥주 브랜드 맞추기, 관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이 펼쳐져 시장을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예천읍 상설시장에만 3,000여 명이 방문하고 약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방문객들이 인근 원도심 상권으로 이동해 추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맥주와 전통시장의 신선한 조합이 예천읍 상설시장을 넘어 원도심 전체 상권에 훈풍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봉화군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우수상'

간호사·행정 등 총 7명 구성 이송·현장 종합 브리핑 평가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6일 경북 주최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경상북도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이번 대회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 신속·체계적인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봉화군 신속대응반은 배재정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비롯해 간호사, 행정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실전과 유사한 위기 상황을 설정해 현장출동,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분류, 처치, 이송, 현장 종합 브리핑 등을 평가, '재난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골든벨'을 통해 신속대응반 업무 숙지 및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배재정 보건소장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재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농어민수당 30억원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구당 60만원 年 2회 지원 하반기 총 10263명 확정

예천군은 하반기 농어민수당 30억 7000만원을 추석 전에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부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6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 수당은 지난 5월과 6월에 지급이 완료

됐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로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경영주로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주다. 단,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된다.

군은 하반기 지급 대상으로 총 10263명을 확정,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예천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문경시, 2024 반려동물문화축제 마무리

'문경시와 영원히 행복' 주제 성숙한 문화 및 인식개선 위해

문경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경시와 영원히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주최한 2024 반려동물문화축제가 7일 마무리했다.

축제는 보다 성숙한 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훈련견 시범경기는 반려동물의 놀라운 능력과 훈련사와의 조화로운 협력 등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훈련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고, 토크쇼와 OX 퀴즈 대회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및 질의응답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 등 양육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문경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축제 외에도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도 달 라 저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 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칼럼

미국 대선과 한국의 안보 · 외교 과제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소장



1991년 이전의 냉전과 현 냉전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

그때는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에 의해 단절된 상태에서 동·서가 대치했지만, 오늘날엔 상대편 주전 선수가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제·기술·문화적 교류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패권의 쇠락, 핵거버넌스의 혼란과 핵전쟁 가능성의 가시화,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해 온 유엔 안보리의 무력화, '북·중·러 북방삼각'의 군사적 밀착,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 등도 냉전의 특징이다.

이 모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종합하면, 지금 한국은 6·25 전야 이래 최악의 안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잇을 만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한국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돈을 써야 하나"고 외치는 중산층이 신고립주의를 견인한다.

신고립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

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축소·포기시킴으로써 북방삼각의 오판을 조래해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을 위협에 빠뜨리진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동맹·핵우산 해체'를 끌어내기 위해 더욱 험악한 '벼랑 끝 책계임'으로 미국 국민을 겁박하려 들 것이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지만, 신고립주의자들이 외치는 이런 주장은 1950년 '에치슨 선언'처럼 '한국 포기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악몽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내 신고립주의의 발흥을 경계하면서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충격과 파장을 예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정당이나 후보에 따라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추세다.

한국은 누가 또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그 대통령과 정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 장단기 동맹외교 전략을 대비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맹신하면서 반대편 후보를 백안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금물이다.

둘째,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동맹을 포기해야 하는 핵무장'보다 핵무장을 보유하더라도 강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기본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과제는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황당한 상황'이나 '치명적 상황'을 촉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북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음에도 미 핵우산이 보일 듯 말 듯한 존재로 남는다면 한국에는 '황당한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동맹 무력화나 핵우산 소멸을 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치명적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 기술력 재배치 등 신고립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확장억제력을 현시해야 한다.

아니면 한국 스스로가 '비핵국이지만 위급시 단시간 내 핵보유가 가능한 나라'로 변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비정함을 무한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70여 년 혈맹국과의 협상에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4% 수준으로 올리는 결단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많이 부응함으로써 워싱턴의 신고립주의적 대한(大韓) 정책을 불식시키는 처방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및 대만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3개국에 속하는 한국이 스스로 택해야 하는 자강(自強)의 길이기도 하다.

—오늘의 정치 논평

갈팡질팡, 대구를 대하는 여당의 태도



오영준

대불애민주당 대구시장 대변인

대구 미래 책임질 대구문화예술포럼 사업이 혼란과 무책임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 건립' 원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 바가 있다.

최근 조성 부지가 경북도청 후적지로 확정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홍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뒤로 물러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북구청장과 달성군수 간의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구갑 우재준 국회의원의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병원 이전' 제안 역시 무책임한 상상에 불과하다. 지역주민 및 북구청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반대의 제안에 나섰다 것은 국회의원로서의 책임의 무게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구 시내 선출 권력들 간에 벌어지는 알력 다툼과 남 탓 공방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치적 주체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고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과 대구시장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다고 말만 앞세우는 행태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시정과 건전한 지역 정치를 위해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대구시와 경찰의 쿠키축제 반대

정의당 대구시장 오는 28일로 예정된 대구쿠키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장소를 바꾸거나 규모를 줄이라는 요구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따져 보면 그냥 '반대'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며 경찰에 대해서도 "집회가 금지되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달라"고 밝혔다. 집회에 대한 신고, 금지, 제한통고 등은 대구시의 권한이 아니다. 월권이다. 지난해 쿠키축제를 막겠다고 내세웠던 '도로점용허가'는 이미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700만원 배상이나 허시라. 경찰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허용한다"며 "제한통고"를 내렸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인이 아니다. 집회 참가자도 원활한 축제를 열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구쿠키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개최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바뀐 건 홍준표 시장뿐이다.

대구시와 경찰은 모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유로 내세운다. 언뜻 정당할 것 같지만 실제 정당하지 않은 판단이다. 집시법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고로 충분하다. 간혹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통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 건강소식

“혈중 비타민D 농도 높을수록 사망 위험 낮아진다”

혈중비타민D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으로 진행한 14년간의 농촌기반코호트 추적 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1만8797명의 혈중비타민D 농도와 사망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비타민D는 체내 칼슘 대사를 조절하여 뼈의 성장 및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주로 햇빛 노출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며 어류, 버섯류, 비타민D 강화 유제품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 가능하다.

최근엔 근골격계질환뿐 아니라 암, 심혈관계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사망위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중 비타민D 농도를 $\Delta 30\text{nmol/L}$ (리터당 나노몰) 미만 $\Delta 30\text{-}$



$<50\text{nmol/L}$ $\Delta 50\text{-}75\text{nmol/L}$ $\Delta 75\text{nmol/L}$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30nmol/L 미만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의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혈중비타민D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국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0nmol/L 보다 낮으면 결핍 또는 심각한 결핍으로 분류한다.

분석 결과 혈중비타민D 농도가 가장 낮은 30nmol/L 미만 그룹에 비해 $30\text{-}50\text{nmol/L}$, $50\text{-}75\text{nmol/L}$, 75nmol/L 이상인 그룹에서 전체 사망 위험이 각각 18%, 26%,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50\text{-}75\text{nmol/L}$, 75nmol/L 이상인 그룹에서 각각 37%, 45% 더 낮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중비타민D가 1nmol/L 씩 증가함에 따른 전체 사망위험을 분석한 결과 낮은 농도부터 약 $50\text{-}60\text{nmol/L}$ 수준까지는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 이후부터는 감소 정도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타민D가 결핍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예방 및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한국인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타민D 농도 규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식이요법 분야 국제학술지 'Clinical Nutrition' 43권 9호에 게재(9월1일)됐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月刊 정치와사람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